

#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에 대한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와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통한 대조 분석

장 재 응

(對外經濟貿易大學)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부분 중첩으로 만들어진 한국어 상징 부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 학자 王洪君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는 王洪君과는 달리 부분 중첩 현상을 일관되게 접두사화로 가정하고, 접두사 부가 방식에 대한 분류를 시도해 보았으며, 그 결과 어간의 형태, 특히 말음으로 나타나는 소리 자질은 접두사 부가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의 제약 등급 순위를 대조한 결과 중첩의 적용 양식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두 언어에서 공히 설단을 /t/와 유음 /l/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를 기능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는 최적성 이론의 틀 안에서 중요한 몇 개의 제약과 그들의 특정 등급만으로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를 쉽게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어, 의태어, 최적성 이론, 운율 형태론, 王洪君,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 I. 서론

한국어의 의성어 및 의태어 등 상징 부사들은 말음으로 나타나는 자음 유형의 제한, 후두음 자질에 의한 자음 교체, 모음 조화 현상 등(허용 2003:582-593) 다른 어휘들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음운론적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국어 상징 부사는 주로 완전 중첩이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sup>1)</sup> 이 때문에 한국어의 상징 부사들은 일찍부터 형태 음운론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강옥미 1998, 서정민 2002, 김정아 2004, Stuart&Lee 1994, Jun 1994 등).

王洪君(2008:160-166)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도 그 중의 하나인데 이 글은 王洪君에서 보이는 분석들의 문제점 및 한계에 근거하여 한국어 상징 부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중첩 현상 가운데 부분 중첩 현상을 대상으로 접사 분류 방식의 근거를 찾고 이에 대한 대안적 분석으로 최적성 이론의 틀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의성어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통해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최적성 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의 접사 부가 방식과 중첩 유형에 따른 언어 유형론적 대조와 음성·음운론적 특징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II. 문제 제기

王洪君은 牟廷烈(2001)에 기초하여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牟廷烈에서 인용한 한국어 의성·의태어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기존의 분석에서도 주로 다루어진 것들로서, 선행 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석이 지닌 강점을 보이기 위해 음

1) 김미형(2009:190)은 많은 한국어 예들이 첩어로 이루어지는 점은 한국어 문자가 갖는 초성·중성·종성 한 음절 모아쓰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했다. 영어는 첩어로 쓰려면 단어가 길어지는 반면에 한국어는 한 두 음절 더 붙이면 되니까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성표시까지 포함해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만을 표시하였다.

(1) 한국어 의성·의태어

- a. ttok ttak(똑딱)
- b. a sak(아삭), pa sak(바삭), o tok(오독), pa tuok(바둑), pu luŋ<sub>2</sub>(부릉) kke keŋ(깨갱), ʃu luk(주룩)
- c. tuŋ sil(둥실), suul ʃʃək(슬쩍)
- d. te kul(테굴), pə tum(버듬)
- e. təl kək(털걱), ʃəl kək(절걱), teŋ kəŋ(탱경), ka laŋ(가랑), kkak(꽂각)
- f. ə kit(어깃), su kun(수군), a lum(아름), kom t<sup>h</sup>uul(곰톨), han tuul(한들), ə suul(어슬)

王洪君은 표준 중국어와 다르게 한국어 의성·의태어의 기본 형식을 2음절로 잡았다. (1a)만이 1음절에서 파생되었고(ttak → ttak ttak → ttok ttak) 그 수도 매우 적은 반면, (1b, c, d, e, f)는 1음절 단독으로는 어휘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1a)를 제외한 (1b, c, d, e)에서 파생된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는 다음과 같다.<sup>2)</sup> 王洪君은 2음절에서 후행 음절을 중첩해 파생된 의성·의태어와 3음절을 기본 형식으로 한 의성·의태어는 다른 범주의 의성·의태어로 보아 (2)에 포함시켜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k<sup>h</sup>uŋ ʃʃək ʃʃək과 a ʃ<sup>h</sup>a ʃ<sup>h</sup>a는 전자의 예이고 tto lu lu와 ua lu lu는 후자의 예이다. 또한 (1f)도 중첩이 아닌 단순히 음절 첨가로 보아 제외했다.<sup>3)</sup> (1)에서 부분 중첩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의 분류 번호를 그대로 채택해 (2)를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도 이를 따른다.

2) 의성·의태어는 중첩 외에 1. 모음 조화에 따른 주요모음의 교체(sakak 대 səkək), 2. 음절 두음의 후두음 자질 교체(kalaŋ 대 kkaŋ 대 k<sup>h</sup>alaŋ), 3. 음절 말음의 비음과 非비음 간의 교체 방식(tal ka tak 대 tal ka taŋ) 등을 통해 여린 느낌이나 센 느낌의 소리, 작은 느낌이나 큰 느낌의 소리 등으로 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3) 王洪君이 제시한 음절 첨가 규칙은 다음과 같다. ə kit을 예로 든다. ə kit → ə kit ... → ə kit+ʃʃək → ə ki ʃʃək.

(2)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

- b. a sa sak(아사삭), pa sa sak(바사삭), o to tok(오도독), pa tuu tuuk  
(바드득), pu lulutun(부르릉), kke ke keŋ(깨개갱), ŋu lu luk(주루룩)
- c. tu tuŋ sil(두둥실), suu suul ŋʃək(스슬쩍)
- d. tek te kul(텍테굴), pət pə tum(벌버듬)
- e. təl kə tək(털거덕), ŋəl kə tək(절거덕), teŋ kuu ləŋ(땡그렁), ka lu  
laŋ(가르랑), kkol kka tak(콜까닥)<sup>4)</sup>

결국 (1)에서 제시한 한국어 의성·의태어 중 (2b, c, d, e)만이 부분 중첩이 적용된 중첩 어휘들이다. 이에 대한 王洪君이 제안한 규칙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실선은 중첩 대상을, 점선은 삽입되는 자리를 나타낸다.

(3) 규칙

- b. a sak → a ... sak → a sa sak
- c. tuŋ sil → ... tuŋ sil → tu tuŋ sil
- d. te kul → ... te kul → tek te kul
- e. təl kək → təl k ... ək → təl k+ə+t+ək → təl kə tək

王洪君은 부분 중첩 현상을 일관되게 접미사 부가의 과정으로 보아 왔던 기존의 분석과는 다르게(McCarthy&Prince 1986 등) (3b, c, d)는 접두사 부가 과정으로 (3e)는 접미사 부가 과정으로 본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어휘 전체로 보면 (3b, e)는 어중 중첩이고, (3c, d)는 어두 중첩이다. 아래 도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王洪君은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분석에서와는 달리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 분석에서는 운율 형판(韻律模塊 prosodic template)을 이용한 도출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는 (3)의 규칙과 王洪君의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분석 방식에 따른 필자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이다. Stuart&Lee(1994)와 김정아(2004)의 분석 모델을 응용하였다.

4) 王洪君에서는 (2e)에 pi ŋʃi ŋʃək이 포함되었지만 한국어 의성·의태어의 기본 형식 (1e)에 이 어휘가 들어 있지 않고, 마지막 음절 형태에서 볼 때 (1f)의 음절 첨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의 부분 중첩어들은 (1)을 기본 형식으로 모두 파생되었다.

(4) 도출 과정

b. a sak → a sa sak

i. 어간	ii. 접사 부가	iii.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σ σ + σ	σ σ + σ
∧ ∧	∧ ∧	∧ ∧ ∧
a sak	a sak	a sak sak = a sa sak

c. tuŋ sil → tu tuŋ sil

i. 어간	ii. 접사 부가	iii.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σ σ + σ	σ σ + σ
∧ ∧	∧ ∧	∧ ∧ ∧
tuŋ sil	tuŋ sil	tuŋ tuŋ sil = tu tuŋ sil

d. te kul → tek te kul

i. 어간	ii. 접사 부가	iii.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σ σ + σ	σ σ + σ
∧ ∧	∧ ∧	∧ ∧ ∧
te kul	te kul	te kul te kul = tek te kul

e. təl kək → təl kə tək

i. 어간	ii. 접사 부가	iii.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σ σ + σ	σ σ + σ
∧ ∧	∧ ∧	∧ ∧ ∧
[təl kək] <sub>F</sub>	[təl kək(k)] <sub>F</sub>	təl kə t (k) = təl kə tək təl kə

(4b)의 중첩된 형태를 보면 복사의 대상이 되는 음절은 CVC의 중음절임을 알 수 있다. (4b ii)에서는 단일 모라로 구성된 중첩 접사의 형판이 어중에 접두사로서 부가되는 것을, (4b iii)에서는 음운의 복사 및 음운 형판과 복사된 음절의 연결 과정을 나타낸다. 王洪君은 접두사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판과 복사된 음운의 연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지고 연결되지 않은 음운은 삭제되므로 (4b iii)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4c)는 (4b)와 중첩의 과정은 동일하나 다만, 접사가 삽입되는 위치가 어두라는 점에서만이 다를 뿐이다. (4d)에서는 중첩 접사를 두 개의 모라를 지닌 음절로 보고 어간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첩 접사의 형판에 연결하는 것으로 중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sup>5)</sup>

(4e)의 도출 과정에서 핵심은 접미사 부가의 경우 언어 유형론적 근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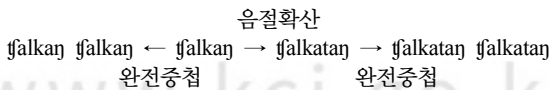
서 ‘운율적 영역지정(prosodic circumscription)’의 틀을 활용하여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sup>6)</sup> 첫 번째 2음절 음보에 자음이 /t/로 사전 명세(prespecification)된 단일 모라의 경음절 접미사가 부가되며, 음보 끝의 마지막 자음을 잉여 운율적 요소로 간주한다.<sup>7)</sup> (4eiii)에서 접미사에 사전 명세된 자질값에 따라 복사된 어간의 후행 음절의 두음 /k/는 연결되지 않고 탈락한다. (4e)는 접미사화의 과정이므로, 형판과 복사된 음운의 연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진다.<sup>8)</sup>

- 5) 접두사로 부가되는 중첩 접사 형판 크기의 차이는 王洪君 분석의 문제점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6) McCarthy&Prince(1986)는 몇 가지 전이의 경우를 ‘운율적 영역지정’으로 부른다. 어기가 모라, 음절, 음보와 같은 중심부인 운율단위와 잔여부로 나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긍정적 영역지정(positive circumscription)’은 중심부인 운율단위를 음운적인 정밀 분석을 위해 따로 분리하고, ‘부정적 영역지정(negative circumscription)’은 잔여부에 적용된다. ‘잉여 운율적 요소(extraprosodic element)’는 부정적 영역지정의 대표적 유형이다. 예를 들면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를 부여하는 영어의 강세규칙은 Ameri<ca>를 잔여부 [Ameri]와 강세외적(extrametrical) 끝음절 <ca>로 분리한다(Kenstowicz 1997:936).
- 7) 이 글에서는 음보를 꺾쇠로, 잉여 운율적 요소는 괄호로 표시하였다.
- 8) 王洪君은 추가적으로 (1)과 (2)를 기본형식으로 한 완전중첩의 과정을 도식화했다.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참고로만 제시한다. ʃʌlkən/ʃʌlkək을 예로 든다.

(1) 음성모음(2음절 기본형식은 밑줄로 표시함. 아래에서도 이를 따름.)



(2) 양성모음



王洪君의 분석처럼 형판의 정의를 운율의 실제 단위라고 가정하면 많은 음운 규칙을 분절음 이상의 운율 구성 요소의 영역과 관련하여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음운론적 관점에서 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5)와 같은 어휘들에 대해서는 (4)와 같은 분석이 적용될 수 없다.

- (5) a. ppaŋ → ppapaŋ, tʰak → tʰa tak  
 b. ə kit → ə kit tʃək, su kun → su kun tək

王洪君이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한 (5a)의 어간이 1음절인 어휘는 중첩을 접미사 부가로 본다면 유표적 후두음 자질이 접사에서 상실되고 접두사 부가로 보면 어간의 음절이 자질을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王洪君의 분석으로는 \*ppappaŋ과 같은 잘못된 형태를 도출하게 된다. 접두사 부가로 보고 그 도출 과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6) ppaŋ → ppapaŋ

- |       |           |                          |
|-------|-----------|--------------------------|
| i. 어간 | ii. 접사 부가 | iii. 음운 복사 및 연결          |
| σ     | σ + σ     | σ + σ                    |
| ∧     | ∧         | ∧    ∧                   |
| ppaŋ  | ppaŋ      | ppaŋ    ppaŋ = ppaŋ ppaŋ |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간에서 나타나는 후두음 자질이 중첩된 후 그 자질이 상실되는 과정을 王洪君의 모델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음절 첨가로 다루었던 (5b)의 어휘들은 사실 사전 명세로서 설명했던 어휘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e)의 분석처럼 사전 명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다. 어간에는 없었던 /k/가 왜 접미사의 말음으로 나타났는지 규명해낼 수 없어서이다. 사전 명세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王洪君의 분석에서 사전 명세는 어간으로부터 중첩된 자음 /k/가 형판상의 해당 위치에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사전 명세에 대한 일반적 타당성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즉, 형판이 말단 요소로 모라를 가지기 때문에 음절 두음인 자음은 미리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sup>9)</sup> 또한 이 분석에서 특정 유형의 자음 변화는 부가되는 형판에 어떤 자음이 명세 혹은 불완전명세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음 명세와 형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즉, 왜 자음이 명세된 형판이 부가되거나 불완전명세된 형판이 부가되며 형판에는 왜 특정 자음만 명세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접두사로 부가되는 중첩 접사의 무게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접사의 형판은 (4b)와 (4c)에서는 단일 모라의 경음절인 반면, (4d)에서는 2모라의 중음절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운론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王洪君의 모델에서는 접미사 중첩에서만 잉여 운율적 요소 등의 도입과 같은 다른 중첩 과정을 적용시킴으로써 접두사 부가와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없고, 접미사 부가에서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에 대한 王洪君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밝혔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점들이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9) (4)에서는 모라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王洪君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운율 위계를 모라 > 韻 > 韻律字 > 合音字 > 운율단어 순서로 자신의 책 여러 곳에 기술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분절음은 음절 아래 모라에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III. 대안적 분석

Ⅲ장에서는 두 절로 나뉘어 1절에서는 Ⅱ장의 고찰을 토대로 최적성 이론의 틀로서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을 재분석해보기로 한다. 2절에서는 최적성 이론적 관점에서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여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하고 이를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과 언어 유형론적으로 대조 분석한다. 더불어 두 언어의 부분 혹은 중첩 현상에서 보이는 공통된 음성·음운적 특징도 점검해보고자 한다.

#### 1.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

최적성 이론에서 중첩을 처리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의 기본 제약들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McCarthy&Prince 1995). (i) 여기와 중첩사 사이의 대응을 확보하는 어기-중첩사 일치성( $M_{AX-BR}$ ), (ii)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적용되는 충실성 제약( $M_{AX-IO}$ ), (iii) 유표성 제약이다.<sup>10)</sup> 아래부터는 이에 맞춰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의태어 분석에 요구되는 유표성의 추가 제약들을 개발해보기로 한다.<sup>11)</sup>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제약으로는 접사의 형판의 크기와 위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약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김정아(2004:291-298)의 관찰에 의존한다. 김정아는 한국어 접두사 부가에 의한 중첩은 어간에 포함된 소리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중음절의 말음으로서 /k/나 /ŋ/의 연구개음을 포함하는 형태인가 혹은 그 외의 형태인가에 따라 연구개음을 포함하는 경우는 해당 음절을 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중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즉, /k/나 /ŋ/을 포함하는 경우는 중첩 접사의 형판이 경음절이고 해당 음절 왼쪽에 접사가 정

10) 최적성 이론에서 중첩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와 제약은 McCarthy&Prince(1995), McCarthy(2003, 2009b)를 참고할 수 있다.

11) 제약 개발 및 분석 요령은 김정아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음절이고 전체 어간의 왼쪽에 접사가 정렬되어 접사의 형판 크기와 위치가 달라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어간의 형태에 따라 접사 형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리듬의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복사의 대상이 중음절인 경우 접사는 경음절의 형판을 복사하게 되며, 경음절로 시작하는 어간 전체인 경우 접사는 중음절의 형판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접사와 인접 음절의 비대칭성을 통해 동일한 무게를 가진 음절의 반복을 회피하는 리듬의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동일한 음운의 연쇄를 피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필수 굴곡 원리(Obligatory Contour Principle)가 주로 쓰여 왔다. 필수 굴곡 원리란 운율 층렬에서 인접한 동일 요소는 금지된다는 제약으로 위에서 언급된 리듬의 효과를 포착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중첩의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약화 할 수 있다.

- (7) OCP: X와 Y가 각각 접사와 어간의 요소일 때 이들은 동일한 운율 형판으로서 인접할 수 없다.

접사가 부가될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은 정렬 제약을 설정하여 해결한다. 이 제약들은 화자의 입장을 위한 분별 제약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간의 형태에 따라 접사가 어간의 경계를 넘어 어중에 위치하거나 접사가 어간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 (8) 정렬 제약

- a.  $A_{LIGN-L_{EFT1}}(RED, R, FOOT, L)$ :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은 어간 중음절의 왼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 b.  $A_{LIGN-L_{EFT12}}(RED, R, STEM, L)$ :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은 어간의 왼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설정된 제약들의 등급을 논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와 접사가 충실하지 않으면 유효성이  $M_{AX-BR}$  제약을 지배해서이고 여기와 접사가 충실하면  $M_{AX-BR}$  제약이 유효성을 지배해서이다. 따라서 부분 중첩은 구조 특정한 제약순이 필요할 것이다. 즉, 유효성 제약  $\gg M_{AX-BR}$  제약순

이 필요하게 되고,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M_{AX-IO}$  제약은  $M_{AX-BR}$  제약과 유표성 제약을 지배해야 어간 음절에 입력형이 보존되므로 최상위에 배치된다. 유표성 제약들 가운데 OCP가  $A_{ALIGN-LEFT1}$  보다 상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어떤 승리형도 OCP 제약을 위반하고 승리할 수 없지만 승리형이  $A_{ALIGN-LEFT1}$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A_{ALIGN-LEFT12}$  제약은 위반하는 것이므로  $A_{ALIGN-LEFT12}$  제약과 같은 등급인  $A_{ALIGN-LEFT1}$  제약은 OCP 제약에 의해 지배된다.

위에서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의 분석을 위한 최적성 이론의 기본 제약과 필수적인 유표성 제약, 제약 등급에 관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4)를 상대로 최적성 이론으로 재분석하여 II장에서 제기한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중음절에서의 접두사가 부가되는 중첩의 예부터 분석한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기저의 풍부성(Richness of the Base)’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입력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작은 지면의 타블로를 만들기 위해 타블로에는 유력한 후보형만을 나타내었다.<sup>12)</sup>

(9) a sak → a sa sak

a RED+sak	$M_{AX-IO}$	OCP	$A_{ALIGN-LEFT1}$	$M_{AX-BR}$
a. a sak sak		*!		**
b. a sa sak				***
c. a sa sa	*!	*		**
d. a sak sa	*!			**
e. a sa sa k			*!	***

패자형 (9a)는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최상위 제약인  $M_{AX-IO}$ 를 충족하고 있으며, 어기와 접사의 충실성 관계에 있어서는 두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여  $M_{AX-BR}$  제약을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중음절인 어

12) 최적성 이론과 같은 출력형 중심 이론에서는 입력형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언어특유의 입력형에 대한 제한이나, 어휘부에 대한 언어학적으로 의의 있는 일반화, 어휘부의 체계적인 공백, 어휘부 잉여규칙, 형태소구조 제약, 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입력형이 고려될 수 있다(McCarthy 2003:95-96).

간에 중음절 접사가 부가되므로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여 OCP를 위배한다. 패자형 (9c, d)는 모두 어간인 ‘sak’의 출력형이 ‘sa’로 나타나 입력형에 있는 말이 탈락되어 최상위 제약을 위배한다. 승리형 (9b)와 음성적 실현이 동일한 패자형 (9e)는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이 어간 말음의 왼쪽 끝에 정렬되어 있으므로 접사의 위치를 제어하는  $A_{\text{ALIGN-LEFT1}}$  제약을 위배하여 탈락한다. 따라서 승리형 (9b)가 최하위의 제약만을 위배하여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10)  $\text{tu}\eta \text{ sil} \rightarrow \text{tu tu}\eta \text{ sil}$

RED+ $\text{tu}\eta \text{ sil}$	$M_{\text{AX-IO}}$	OCP	$A_{\text{ALIGN-LEFT1}}$	$M_{\text{AX-BR}}$
a. $\text{tu}\eta \text{ tu}\eta \text{ sil}$		*!		
b. $\text{tu tu}\eta \text{ sil}$				*
c. $\text{tu tu sil}$	*!	*		
d. $\text{tu}\eta \text{ tu sil}$	*!			
e. $\text{tu tu } \eta \text{ sil}$			*!	*

(9)와 같이 패자형 (10c, d)는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최상위의  $M_{\text{AX-IO}}$  제약을 위배하여 가장 먼저 탈락되고 또 다른 패자형 (10a)는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차상위의 OCP 제약을 위배하여 그 다음으로 탈락한다. 패자형 (10e)는 접사의 위치를 제어하는  $A_{\text{ALIGN-LEFT1}}$  제약을 위배하여 탈락하므로 최종적으로 승리형 (10b)가 최하위의  $M_{\text{AX-BR}}$  제약만을 위배하여 최적형으로 출력된다.

王洪君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1음절 부분 중첩 (5a)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유형은 도출된 중첩형의 첫 음절에만 후두음 자질이 나타날 뿐 후행 음절에는 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11)과 같은 제약을 설정한다. 경음이나 격음과 같은 유표적 자질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 후두음 자질과 관련된 유표성 제약  $*L_{\text{AR}}$ 과 어간의 입력형에 포함된 기저의 자질은 접사에도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자질 충실성 제약  $I_{\text{DENT-IR}}(L_{\text{AR}})$ 이 필요하다. 이 제약들은 최적성 이론을 다룬 문헌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제약들이다(McCarthy 2009a).

(11) a.  $I_{\text{DENT-IR}}(L_{\text{AR}})$ :어간과 접사의 후두 자질은 일치되어야 한다.

b.  $*L_{\text{AR}}$ : 후두 자질을 피하라.

(11) 제약은 접두사 부가에 의해 중첩된 출력형들 가운데 잘못된 출력형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OCP 제약보다 아래  $A_{LIGN-L_{EFT1}}$  제약 보다는 상위에 배치해야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접사의 출력형에 유효적 후두음 자질이 허가되는 것으로 볼 때, 어간과 접사의 자질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제약  $I_{DENT-IR(L_{AR})}$ 이 유효성 제약  $*L_{AR}$ 를 지배한다.

(12) ppaŋ → ppapaŋ

RED+ppaŋ	$M_{AX-IO}$	OCP	$I_{DENT-IR(L_{AR})}$	$*L_{AR}$	$A_{LIGN-L_{EFT1}}$	$M_{AX-BR}$
a. ppaŋ ppaŋ		*!		**		
<sup>ε</sup> b. ppa paŋ				*		*
c. ppaŋ ppa	*!			**!		*
d. ppaŋ paŋ		*!		*		
e. ppa ppaŋ				**!		*
f. paŋ ppaŋ		*!	*	*		*
g. pa ppaŋ			*!	*		*
h. ppa paŋ			*!	*	*	*

(12c)는 최상위 제약을 위배하였고, (12a, d, f)는 접사와 어기가 모두 중음절이기 때문에 차상위 제약 OCP를 위배하였다. (12g, h)는 어간과 접사의 자질 동일성을 요구하는  $I_{DENT-IR(L_{AR})}$  제약을 위배하였다. (12e)는 (12b)와 위배한 제약은 같지만  $*L_{AR}$  제약에 대한 위배 횟수가 많아 탈락되고 결국 (12b)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타블로 (13)은 어간 전체에 접두사가 부가되는 중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앞의 형태와는 정렬의 구체적 방식만이 다르므로 (8b)의  $A_{LIGN-L_{EFT2}}$  제약이 적용되며, 위와 동일한 제약의 등급으로서 분석된다.

(13) te kul → tek te kul

RED+te kul	$M_{AX-IO}$	OCP	$A_{LIGN-L_{EFT2}}$	$M_{AX-BR}$
a. te te kul		*!		**!
<sup>ε</sup> b. tek te kul				**
c. tek te ku	*!			*
d. te tek kul			*!	**

(13a)는 차상위 제약 OCP를 위배하여, (13c)는 최상위 제약을 위배하여 각각 최적형으로 선택되지 못한다. (13b)의 유력한 경쟁후보형 (13d)는 어기와 접사의 충실성에 있어 (13b)와 동일하지만 보다 중요한 제약  $A_{ALIGN-LEFT2}$ 를 위배한다. 따라서 최적형으로 (13b)가 선택된다.

이제 (4e)의 부분 중첩의 분석만이 남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첩이 적용된 것으로 보지 않고 김정아(2004)와 Jun(1994)의 중첩 분류 분석에 기대 단순히 접미사가 부가된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이 해석은 결론론적으로 보면 王洪君의 음절 첨가 과정을 (4e)로까지 확대한 것과 같다. 이유는 (2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ak/, /tək/, /lan/, /ləŋ/ 등으로 나타나는 접미사 등이 어간의 형태에 따라 선택되어 부가된다고 할 수 있으며, (1e)와 같이 어간의 말음이 /k/이나 /ŋ/인 경우 접미사가 부가되는 과정에서 조음의 용이성을 위해 말음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이다.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 상관관계는 Jun(1994)의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간의 마지막 말음이 /k/인 경우는 /tVk/으로, /ŋ/인 경우는 /tVŋ/으로 접미사의 형태가 선택된다. 또한 어간의 마지막 말음과 접미사 두음의 관계를 보면, 어간의 마지막 말음이 /k/ 혹은 /ŋ/인 경우는 접미사의 두음이 /t/가 되며, /l/인 경우는 /l/로 선택된다.

접미사의 두음으로서 /t/나 /l/이 선택되는 것은 유표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소리로 알려진 설단음 /t/와 유음 /l/이 접사로 선택되는 것은 조음의 용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접두사 부가 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구조 기술(structural description)과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를 설득력 있게 분석함으로써  $M_{AX-IO}$ , OCP,  $M_{AX-BR}$  등 소수의 기본 제약만으로도 한국어의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을 운율 형태론적 분석보다 성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에서는 어간의 후두음 자질이 중첩 어휘에서 상실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의 제약들이 요구되었지만, 결국 특정한 몇 개 제약의 등급만으로 부분 중첩 현상을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1음절 상징 부사까지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었다. 끝으로 부분 중첩으로 파악했던 (4e)의 의성·의태어를 중첩이 아닌 단순한 접미사 부가의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접미사 부가에 의한 중첩 과정에서 사용된 사전 명세나 운율

적 영역지정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 2.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대조 분석<sup>13)</sup>

한국어 부분 의성·의태어와의 최적성 이론적 대조 분석을 위해 먼저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의성어를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의성어들은 (14)와 같다.<sup>14)</sup> 아래에 제시된 어휘들은 그것의 특수한 형식 때문에 의성어를 다룬 연구에서 항상 다루어져 왔던 것들이다(朱德熙 1982, 薛鳳生 1986, 鄭錦全 2002, 서미령 2004, 王洪君 2008 등). 이에 대한 王洪君(2008:157-160)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한 발전적 토대로 삼기로 한다.

### (14) 부분 중첩 의성어 자료<sup>15)</sup>

- a. p<sup>hi</sup> p<sup>ha</sup>(啾啾), tin tan(丁當) 등
- b. p<sup>ha</sup> la(啾啦), ku lu(咕嚕) 등
- c. p<sup>hi</sup> p<sup>hi</sup> p<sup>ha</sup>(啾啾啾) 등
- d. ku lu lu(咕嚕嚕) 등
- e. p<sup>hi</sup> li p<sup>ha</sup> la(啾里啾啦), tin lin tan lan(丁零當郎), tei li ku lu(噉里咕嚕) 등
- f. hua la la la(嘩啦啦啦)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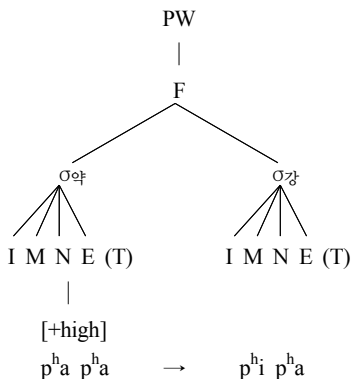
13) 이 절은 필자(2011)의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분석을 본 논문의 작성목적 중 하나인 한국어와 대조 분석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히 제약과 제약 등급에 수정을 가했다.

14) 필자는 본 논문의 집필과정에서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의 부분 중첩 현상을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이와 같은 본 논문의 특성상 그 분석 과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 만큼 표준 중국어의 분석 과정에서는 의성어에 한하여 간략히 예를 들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15) 아래부터는 의성어를 국제음성기호로만 표기한다. 성조는 1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14)의 부분 중첩 과정을 설명하는 해결책으로 王洪君(2008:157-160)은 운율 형판을 이용한 분석을 제안하였다. (14a)를 예로 제시한다.

(15) p<sup>hi</sup> p<sup>h</sup>a식



운율 형판은 최대 음절이고 형판 부가의 방식은 중첩으로서 1음절 어근이 1차 중첩(2음절)되거나 2차 중첩(4음절)되서 얻어진다. 의성어의 운율 특징은 음절무계와 石毓智(2005)의 이론에<sup>16)</sup> 기대 공명도에서 앞 음절(음보)이 약하고, 뒤의 음절(음보)이 강한 음보(운율단어)를 구성한다고 제안한다.<sup>17)</sup> 따라

16) 石毓智(2005:117-118)가 의성어, 雙聲聯綿詞 등의 특수한 음절 구조에서 찾은 원칙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1 두 번째 음절 聲母의 공명도는 반드시 첫 번째 음절 聲母의 공명도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원칙2 두 번째 음절의 韻母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보다 복잡하다. 예들 들어 두 번째 음절은 일반적으로 韻尾 혹은 韻頭가 있으며, 첫 번째 음절은 일반적으로 단모음이다. 두 번째 음절의 韻母의 공명도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보다 높거나 첫 번째 음절과 같다. 원칙3 두 음절의 성조는 총체성(整體性)을 가지며, 더 이상 의미변별 작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1성을 사용하며, 두 번째 음절은 대부분 경성으로 읽는다. 이상 보편적인 원칙 외에도 두 聲母의 공명도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출현하는 순서는 다시 조음부위의 제한을 받는다. 聲母 순서의 제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규칙1 순음 + 치조음(\*치조음 + 순음). 규칙2 경구개음 + 치조음 (\*치조음 + 경구개음). 규칙3 연구개음 + 치조음(\*치조음 + 연구개음).

17) 王洪君(2008)의 다른 곳에서는 표준 중국어(자연언어를 대상)의 운율 요소로 휴지(pause)를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성어와 같은 일부 다음절어에서만 볼 수 있는 운율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서 p<sup>h</sup>a p<sup>h</sup>a로 중첩되었을 때 약강 음보를 형성하기 위해 중첩 접사의 형판에 사전명세된 자질값에 따라 (15)는 앞 형판의 주요모음이 /i/와 연결된다.<sup>18)</sup>

이와 같이 중첩으로 보는 王洪君의 분석과는 다르게 필자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같이 표준 중국어도 일관되게 접사화로 분석한다. 李鏡兒(2007: 232-245)에서 수집된 의성어 자료 목록의 조사 및 접사 부가로서 접근하여 중첩 어휘들을 파악하여 본 결과, 우선 중첩 현상은 음보 구성에 따른 어간의 형태에 따라 접두사 부가와 접미사 부가로 분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접사 위치의 차이는 오른쪽에서부터 공명도에 의한 약강음보를 구성하면 해당 음보 왼쪽에 접사가 정렬되는 것으로(접두사 부가) 또한 왼쪽에서부터 구성하면 해당 음보 오른쪽에 접사가 정렬되는 것으로(접미사 부가)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14c)는 공명도에 의한 약강음보인 [p<sup>h</sup>i p<sup>h</sup>a]<sub>r</sub>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운율적 영역을 지정해야 하므로 접두사화로 본다. (14c)와 반대로 (14d)와 (14f)는 음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접사가 어간 뒤에 부가되는 접미사화 부가로 본다.

(16) p<sup>h</sup>a → p<sup>h</sup>i p<sup>h</sup>a<sup>19)</sup>

a. 어간	b. 접사 부가	c. 음운 복사 및 연결 <sup>20)</sup>
σ	σ + σ	σ + σ
^	^   ^	^   ^
CVX	CVX CVX	CVX CVX
p <sup>h</sup> a	i p <sup>h</sup> a	p <sup>h</sup> a i p <sup>h</sup> a = p <sup>h</sup> i p <sup>h</sup> a

(16b)의 접사는 한 개의 음절로 구성되고, 모음이 /i/로 명세된다. 접사는 분절음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분절음을 모두 복사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 다음 복사된 음절의 두음과 모음은 접사의 빈자리에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은 분절음, 즉 모음 [a]는 발음되지 않는다.

18) 공명도 연쇄 원리(sonority sequencing principle)는 모음(저 > 중 > 고모음) > 반모음 > 유음 > 비음 > 장애음(파열마찰음 > 파열음, 유기 > 무기)의 순서이다.

19) p<sup>h</sup>a → p<sup>h</sup>i p<sup>h</sup>a(啞 → 啞啞)로도 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朱德熙의 설을 따라 접두사 부가로 본다.

20) 음절 구조는 Duanmu(2005)를 따른다.

최종적으로 (14)는 이런 분석 과정을 거쳐 접사의 부가방식에 따라 (17)과 같이 재분류된다.

(17) 접두사와 접미사의 부가방식에 따른 부분 중첩 의성어 분류

- a. 접두사 부가: p<sup>h</sup>a → p<sup>h</sup>i p<sup>h</sup>a(啪 → 啪啪), taŋ → tiŋ taŋ(當 → 丁當) 등
- b. 접두사 부가: p<sup>h</sup>i p<sup>h</sup>a → p<sup>h</sup>i p<sup>h</sup>i p<sup>h</sup>a(噼啪 → 噼噼啪)
- c. 접미사 부가: ku lu → ku lu lu(咕嚕 → 咕嚕嚕) 등
- d. 접미사 부가: hua la la → hua la la la(嘩啦啦 → 嘩啦啦啦) 등

(17)과 (14)를 비교하면, (14b)와 (14e)가 남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는 접사 부가에 따른 부분 중첩이 아닌 완전 중첩(XX식과 XXYY식)의 결과에 일종의 이화현상(dissimilation)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우로 설명한다.<sup>21)</sup> 이는 의성어 자료에 대한 관찰과 McCarthy&Prince(Kenstowicz 1997:934-935에서 재인용)의 흉내말(echo words)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표준 중국어 의성어의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개발된 중첩사의 위치에 대한 자리매김을 지시하는 유표성 제약인 정렬제약 (8)을 약간 손질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의성어들은 접두사 부가와 접미사 부가로 분류되었으며, 음보 구성에 따른 어간의 형태에 따라 복사의 대상, 다시 말해 접사가 부가되는 위치가 상이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각각 제약화하면 다음과 같다.

(18) 정렬제약

- a. ALIGN-LEFT(RED, R, FOOT, L):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은 음보의 왼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 b. ALIGN-RIGHT(RED, L, FOOT, R): 중첩 접사의 왼쪽 끝은 음보의 오른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에 사용할 제약에 관한 기술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절의 목적에 맞게 표준 중국어 의성어의 부분

21) 李鏡兒(2007:120)는 XXYY식을 XX식과 YY식의 결합으로 봄으로써 본 논문과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李珊(2003:241)의 관점은 본 논문과 일치한다.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를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는 운율적 분석과 본 논문 분석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사전명세의 문제가 현재의 분석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19)  $p^h a \rightarrow p^h i p^h a$

RED + $p^h a$	$M_{AX-IO}$	OCP	$A_{LIGN-L}$	$M_{AX-BR}$
a. $p^h a p^h a$		*!		
b. $p^h i p^h a$				*
c. $p^h u p^h a$				*
d. $p^h i p^h a \eta$	*!			**
e. $p^h a p^h i$			**!	*
f. $p^h i p^h i$	*!	*		

후보형 (19a)는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최상위의 제약을 충족하고 있으며, 어기와 접사의 충실성 관계에 있어서는 두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여  $M_{AX-BR}$ 을 충족한다. 그러나  $p^h a$  어간에  $p^h a$  접사가 부가되므로 동일한 운율 형편이 인접하여 OCP를 위반한다. 후보형 (18d)는 어간인  $p^h a$ 의 출력형이  $p^h a \eta$ 로 나타나 입력형에 있는 요소에  $\eta$ 이 삽입되어  $M_{AX-IO}$ 를 위반하고 있으며, 후보형 (19e)는 접사의 위치를 제어하는  $A_{LIGN-L}$ 을 위반하여 최적형으로 선택되지 못한다. 후보형 (19f)도 후보형 (19a)와 같이  $p^h i$  어간에  $p^h i$  접사가 부가되어 동일한 운율 형편이 인접하게 되므로 OCP를 위반하여 탈락한다. 후보형 (19b)와 (19c)는 각 제약에 대한 위반이 동물을 이루어 후보형 간에 승패를 가를 수 없다. 결국 동물을 깨기 위해 추가 제약을 도입해야 한다.

(19)와 같은 부분 중첩에서 특이한 것은 도출된 중첩형의 첫 음절에만 [+high] 자질이 나타날 뿐 그 외의 음절들에서는 [+high] 자질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igh] 자질이 중첩형에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과 같은 분절음 내부제약  $*V_{[+back]}$ 이 요구된다. 이것은 McCarthy(2009a:293-294)에서 계발 받았다.

22) 사전명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 II장에 기술하였다.

(20) \*V<sub>[+back]</sub>: [+back] 자질을 가진 모든 모음에 한 개의 위반표시를 부여해라.

위의 표에 \*V<sub>[+back]</sub> 제약을 OCP 제약 다음에 새롭게 추가해 분석하면 (21)과 같다.

(21) p<sup>h</sup>a → p<sup>h</sup>i p<sup>h</sup>a

RED + p <sup>h</sup> a	M <sub>AX</sub> -IO	OCP	*V <sub>[+back]</sub>	A <sub>LIGN</sub> -L	M <sub>AX</sub> -BR
a. p <sup>h</sup> a p <sup>h</sup> a		*!			
b. p <sup>h</sup> i p <sup>h</sup> a					*
c. p <sup>h</sup> u p <sup>h</sup> a			*!		*
d. p <sup>h</sup> i p <sup>h</sup> aŋ	*!				**
e. p <sup>h</sup> a p <sup>h</sup> i				**!	*
f. p <sup>h</sup> i p <sup>h</sup> i	*!	*			

(19)에서 후보형 (21b)와 제약 위반 사항이 동물이었던 후보형 (21c)는 중첩형의 핵음이 [+back] 자질을 가져 M<sub>AX</sub>-BR 보다 상위 제약인 \*V<sub>[+back]</sub> 제약 위반에 의해 탈락되고 M<sub>AX</sub>-BR 제약만을 위반한 후보형 (21b)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보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이에 입각한 유형론적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최적성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가정은 제약 등급이 언어가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언어의 다양성은 일련의 보편 제약의 등급의 순위 매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제약 등급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료 출처는 앞에서와 같다.

- (22) a. 한국어: M<sub>AX</sub>-IO >OCP >I<sub>DENT</sub>-IR(L<sub>AR</sub>) >\*L<sub>AR</sub> >A<sub>LIGN</sub>-L<sub>EFT1</sub>,  
 A<sub>LIGN</sub>-L<sub>EFT2</sub> > M<sub>AX</sub>-BR  
 b. 표준 중국어: M<sub>AX</sub>-IO >\*OCP >\*V<sub>[+back]</sub> >A<sub>LIGN</sub>-L, A<sub>LIGN</sub>-R  
 >M<sub>AX</sub>-BR

앞에서의 논의 결과 한국어는  $M_{AX-IO} \gg OCP \gg I_{IDENT-IR(L_{AR})} \gg *L_{AR} \gg A_{ALIGN-L_{LEFT1}}, A_{ALIGN-L_{LEFT2}}$  제약 순으로 음운 제약의 등급 순위를 매길 수 있고, 표준 중국어는  $M_{AX-IO} \gg *OCP \gg *V_{[+back]} \gg A_{ALIGN-L}, A_{ALIGN-R} \gg M_{AX-BR}$  제약 순의 등급 순위를 보인다.<sup>23)</sup> 표면적인 관찰에서 두 언어는 일부 음운 제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최적성 이론의 관점에서 두 언어의 차이는 음운 제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한국어가 표준 중국어의 일부 제약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제약들은 한국어의 제약 등급에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이 제약들을 제압하는 다른 제약 때문에 비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제약 등급의 순위를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뿐이다. 그 결과 두 언어 중첩의 적용 양식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기와 중첩 접사의 모양은 일치하지 않지만 해당 언어 전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음운 제약을 중첩 접사가 준수하게 되어 음운적으로 무표형이 중첩접사에 나타나게 되는 I-O 충실성 제약  $\gg$  음운 제약  $\gg$  B-R 일치성 제약 양식(Kager 1999:194-256).

또한 두 언어의 전체적인 (부분)중첩 현상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음성·음운론적 특징을 대조 비교해보면, 두 언어에서 공히 설단음 /t/와 유음 /l/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어에서 접미사 부가의 경우 접미사의 두음은 이 두 소리로 예외 없이 선택되었다. 표준 중국어에서는 완전 중첩의 결과에 이화현상이 적용된 의성어인 경우 두 번째와 네 번째의 두음 자음은 /t/와 /l/이 가장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서미령 2004:113). 두음이 /t/와 /l/로 선택되는 것은 기능주의 동기에서 설명할 수 있다. /t/와 /l/은 언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소리로서 /t/는 순음과 더불어 가장 먼저 습득되는 자음으로 알려져 있고, /l/은 자음에서 공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음상의 용이성과 동일성의 회피 및 리듬의 효과 극대화에서 왔다

23) 필자(2011:24)의 처음 분석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음운 제약들이 최적성 후보 선택을 놓고 상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약 간의 선후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V_{[+back]}$  제약은 중첩의 출력형에 적용되므로 중첩 과정을 제약하는  $*OCP$  제약과  $A_{ALIGN-L}, A_{ALIGN-R}$  사이에 놓여야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제약등급을  $M_{AX-IO} \gg *OCP \gg *V_{[+back]} \gg A_{ALIGN-L}, A_{ALIGN-R} \gg M_{AX-BR}$ 로 수정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본 논문의 논의결과 및 성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王洪君의 운율 형태론적 방식으로 분석되었던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어휘들에 대해 그 연구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고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현상과 대조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I장에서는 한국어 의성 의태어의 특징을 제시하고 연구동기와 목적을 기술하였다. II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분석에 대한 王洪君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 모델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선 王洪君의 모델로는 다양한 한국어 부분 중첩 유형의 분석을 다룰 수 없다는 점과 사전 명세가 가지는 문제점을 들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첩 과정에서 접두사 형판 크기가 왜 차이가 나고 접미사 부가 과정에서는 접두사 부가와는 다르게 사전 명세와 운율적 영역 지정의 개념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III장에서는 최적성 이론을 통한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의 재분석 과정과 결과가 논의되었다. /k/와 /ŋ/가 말음으로서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부가되는 접사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파악했다. 연구개 말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중음절이 복사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어간이 복사의 대상이 되었다.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지 못한다는 리듬의 보편성에 의해 접사의 크기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필수 굴곡 원리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최적성 이론적 분석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중요한 몇 개의 제약과 이들의 특정 제약 등급만으로 운율 형태론적 연구에 비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후두음 자질을 어간에 포함한 1음절 어휘의 경우 특정 자질을 금지하는

제약과 어간의 입력형과 중첩 접사의 대응 관계를 제약으로서 적용하였으며 정렬의 위치함이 다를 뿐 접두사 부가의 두 가지 양태는 동일한 제약의 등급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부분 중첩으로 분류했던 유형을 단순한 접미사 부가로 재분류하여 접사 부가 양상을 운율적 영역 지정이나 사전 명세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분석 장치가 필요 없는 접두사 부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지고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현상 중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 결과와 제약 등급 차이에 의한 언어 유형론적 대조를 보였다. 대조 분석 결과는 개별 언어의 차이는 제약 등급 차이에 기인한다는 최적성 이론의 근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의 접미사 부가와 표준 중국어 완전 중첩에 따른 의성·의태어의 음성·음운적 측면을 비교한 결과 두음이 /l/와 /l/로 선택되는 공통적인 음성·음운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능주의 동기에서 조음상의 용이성과 동일성의 회피, 리듬의 효과 극대화에서 왔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인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형성 과정과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다양한 부분 중첩 현상들을 대조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의성·의태어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에서 제한된 수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분류 기술된 것이므로 다양한 변이형을 지닐 수 있는 중첩 어휘들의 도출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만 더 많은 한국어 상징 부사를 분석해나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는 후속연구로 미룬다.

## ■ 참고문헌

- 강옥미, 「한국어의 부분중첩에 대한 대응이론 분석」,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4호, 1998.
- 김미형,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2009.
- 김정아,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의 재해석」, 『언어』 29권 3호, 2004.
- 단무 씨, 『표준중국어음운론』, 엄익상 외 역, 한국문화사, 2005.
- 서미령, 「북경어 의성어의 음절 구성 및 결합」, 『中國語文學論集』 29호, 2004.
- 서정민, 『重疊現象의 最適性理論의 分析』,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다리아나 아칸젤리, 『최적성이론』, 문승철 외 역, 한신문화사, 1999.
- 마이클 켄스토비츠, 『생성문법의 음운론』, 안상철 외 역, 한신문화사, 1997.
- 안상철,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2003.
- 장재용,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의 음운론적 분석」, 『中國語文學論集』 68호, 2011.
- 정진취안, 『현대중국어 생성음운론』, 엄익상 역, 학고방, 2002.
- 존 맥카시, 『최적성이론의 주제별 안내』, 김영석 외 역, 한국문화사, 2003.
- 존 맥카시, 『최적성이론 해보기』, 이봉형 외 역, 한국문화사, 2009a.
- 존 맥카시, 『최적성이론의 음운론적 불투명성』, 손형숙 역,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b.
- 프란시스 카탐바 외, 『형태론』, 김진형 외 역, 한국문화사, 2008.
- 허웅, 『국어 음운학』, 샘 문화사, 2003.
- Jun, Jongho, “Metrical weight consistency in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Phonology* 11, 1994.
- Kager, R.,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cCarthy, J. J. and A. S. Prince, *Prosodic morphology*, Ms. Waltham: Brandeis University, 1986.
- McCarthy, J. J. and A. S. Prince, “Generalized Alignment”, ROA7-0000, 1993.
- McCarthy, J. J. and A. S. Prince,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ROA60-0000, 1995.



- Stuart, D and Jin-Seong, Lee, “Infixal reduplication in Korean Ideophones”,  
*Japanese/Korean Linguistics* 4, 1994.
- 包智明·侍建國·許德寶, 『生成音系學理論及其應用』,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 李鏡兒, 『現代漢語擬聲詞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2007.
- 李 珊, 『動詞重疊式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2003.
- 牟廷烈, 「韓漢拟聲摹態詞的异同与语言的类型差別」, 『語言學叢論』 23, 北京: 商務印書館, 2001.
- 石毓智, 『語法的形式和理據』 江西教育出版社, 2005[제3쇄].
- 王洪君, 『漢語非線性音系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第2版].
- 徐學萍·朴哲浩, 「优选论与汉语重叠词的声调变化」, 『燕山大學學報』 4.2:79-85, 2003.
- 薛鳳生, 『北京音系解析』, 臺北: 學生書局, 1986.
- 朱德熙, 「朝陽話和北京和重疊式象聲詞的構造」, 『朱德熙文集3』, 北京: 商務印書館, 1982.

❖ ABSTRACT

Study into prosodic morphological analysis in Korean and Standard Chinese partial reduplication and contrastive analysis using optimality theory

Chang, Jae-Woong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by Wanghongjun(2008), this paper applies Optimality Theory (OT) to the field of partial reduplication in Korea to increase its scientific validity. Toward this end, I propose an alternative analysis of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applied as a single process of prefixation. Reduplicated words by prefixation are divided into two types: with a heavy syllable of the stem, and another with the stem. The two types of partial reduplication are closely related by the sound features. In addition, I discussed Chinese partial reduplication from a prefixation perspective within the framework of OT and performed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Standard Chinese processes of reduplication by focusing on constrained rankings. As a result, the alternative analysis showed a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the reduplicated words in Korean and Standard Chinese. Lastly, I explained that the coronal /t/ and liquid /l/ have a special functional hierarchy in both languages.

This study can be re-explained based on the framework of OT according to a few major constraints, involving MAX-BR, MAX-IO. Their rankings show the adequacy of analysis.

Key Words :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onomatopoeia, mimetic word, Optimality Theory, Prosodic Morphology, Wanghongjun, Standard Chinese partial reduplication

- 논문접수일 : 2017. 11. 10
- 심사완료일 : 2017. 11. 30
- 게재확정일 : 2017. 12. 1

